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함세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6월 10일은 '6·10민주항쟁기념일'입니다. 그러나 '6월항쟁'이라고 불러야 한다는 이들도 있습니다. 6월 10일 하루에 초점을 맞추는 것보다는 6월 전체를 기억하는 것이 더욱 포괄적이기에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4·19혁명보다 4월혁명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노동계에서는 '7·8·9 노동자 투쟁'이라고도 하며 이를 포함하여 '87년 항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하루보다는 한 달, 한 달보다는 세 달, 세 달보다는 1년을 주제로 기억한다면 그 폭과 부피가 훨씬 더 크니 아무래도 순간적으로는 크고 넓은 것이 더 좋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우리는 유신과 신군부시절을 7·80년대 항쟁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용어에 집착하기보다는 의미를 찾고 확인하고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와 배경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금강산(金剛山)의 경우를 생각해 봅니다. 봄에는 만발한 꽃과 빛나는 바위가 금강석과 같다하여 우리 선조들은 이 산을 금강산이라고 불렀으며, 여름에는 봉우리마다 푸른 나뭇잎이 우거진 신록의 경치가 너무 아름다워 봉래산(蓬萊山)이라 일컫고, 가을에는 단풍의 그 붉고 작열한 모습에 감탄하여 풍악산(楓嶽山)이라 하고, 겨울에는 나무 잎이 떨어진 앙상한 모습이기에 개골산(皆骨山), 그리고 눈 덮인 모습 때문에 설봉산(雪峰山)이라고도 불렀습니다. 금강산의 이 여러 이름이 바로 일치성 안의 다양성, 다양성 안의 일치성의 표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외에도 비슷한 예는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십인십색이라 했으니 우리는 그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다양성을 하나로 연계할 일치성을 찾아야 합니다. 다양성 안에서의 일치가 바로 공동체의 특성이며 인간의 아름다운 덕성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이 정부는 이러한 다양성을 부정하며 오직 획일만을 추구하고 있으니 너무 답답하고 웅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6월항쟁은 이미 1987년 1월 14일 남영동 대공분실에서 경찰이 자행한 박종철군 고문치사, 그 조작사건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찰은 “책상을 탁하고 치니, 억하고 죽었다”고 언론에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는 거짓이었습니다. 그 거짓을 밝힌 힘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한 정직과 진실뿐이었습니다. 그를 처음 진단한 중앙대의 오연상님은 의사로서 객관적 소견을 사실 그대로 적시했고 국과수의 황적준 박사는 객관적으로 부검을 했고 중앙일보 신성호 기사는 취재한 내용을 사실대로 보도했을 뿐입니다.

그들은 모두 자기 일에 충실한 책임 있는 전문인, 직업인이었습니다. 정직하고 책임있는 직업의식과 소명이 바로 인권과 민주주의 실현 그리고 통일의 초석임을 우리는 이를 통해 확인하게 됩니다. “그저 저희는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루카17,10)라는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일독립투쟁, 인권과 민주주의 그리고 통일을 위해 몸바친 분들은 모두 그때 그 자리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1987년이 바로 그러한 한 해였습니다. 청년, 학생, 시민, 교수, 지성인, 노동자, 농민, 철거민, 언론인, 문인, 법

조인, 예술인, 종교인 등 모두가 함께 나서서 거짓을 거부하고 진실을 외쳤습니다. 최루탄에 맞아 피 흘린 채 쓰러지며 친구의 품에 안긴 이한열 군의 모습이 바로 87년 항쟁의 상징이며 우리 모두를 일깨운 역사적 좌표입니다. 거룩한 그 모습 앞에서 우리는 마음을 가다듬고 현실을 진단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지향하게 됩니다.

6·10항쟁 23주년을 맞는 올해 우리는 이른바 6·29선언의 배경과 진정성에 대해서도 냉철하게 되짚어보아야 합니다. 6·29항복을 정치적으로 완성시키지 못한 책임은 당대를 살았던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물론 일차적으로는 정치인들에게 큰 책임이 있지만 노동투쟁에만 집중했던 노동계의 역사의식과 정치의식의 결여에도 일정한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뒤 양김분열이 결정적 요인이 되었지만, 만일 우리 국민 모두 특히 노동자들이 힘을 모아 희생된 이들의 넋을 제대로 기리고 6·29선언의 핵심을 파악하고 알차게 매진했다면 그해 12월 대통령선거에서 이미 민주주의의 큰 열매를 앞당겨 이루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역사는 때로 매우 냉혹합니다. ‘제 때’를 포착하지 못한 민족은 그 뒤에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마련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저는 김대중, 노무현 두 분 대통령 시절에 좀 더 과감하게 독재 잔재를 청산하고 민주주의를 더욱 깊이 뿌리내려야 했었는데 라는 아쉬움을 갖고 있습니다. 이 6월에 민주진보개혁진영 모두의 성찰과 정치인들의 근원적 반성 그리고 철저한 투신을 염원하며 가야할 길을 꾸준히 견도록 다짐합니다. 아자! 아자! 감사합니다.